

# 5

##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삼상 18:1~5, 19:1~7

찬송가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양 143장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오늘 배울



1.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남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함을 압니다.
2.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영원한 친구이심을 압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같이  하니라 (삼상 18:1)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보다 승하였도다 (삼하 1:26)



## 말씀을 이해하기

좋은 친구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나쁜 친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친구와 좋은 우정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깊은 우정을 쌓고 가꾸어 나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예입니다. 그들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서로 함께 지낼 수도 없었지만 소중한 우정을 끝까지 잘 가꾸어 나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둘 모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연락되다’는 말의 뜻은 ‘하나로 묶다, 연결되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윗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라도 표준 시간에 맞추면 서로의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둘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기에 둘의 마음이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하여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으며 자기의 겂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버지 앞에서 다윗의 선한 성품과 헌신, 업적과 믿음을 칭찬하며 그를 보호해 주었을 뿐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요나단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요나단의 후손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삼상 18:3~4)

Then Jonathan and David made a covenant, because he loved him as his own soul. And Jonathan took off the robe that was on him and gave it to David, with his armor, even to his sword and his bow and his belt. (1S 18:3~4)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요나단은 왜 자신이 아끼는 물건들을 다윗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삼상 18:1, 3, 20:17, 42 삼하 9:6~7).

2

진실한 우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세상과 교회에서의 우정에 대해 비교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삼하 1:26, 벧후 1:7, 요 13:34).

3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롬 12:10, 벧전 1:22, 요일 4:21).

4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 봅시다(요 15:13~16).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요 15:13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요 15:1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롬 12:10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히 13:1

---

---

---

---

---

---

---

---

↓

벧전 1:22

---

---

---

---

---

---

---

---

↓

벧후 1:7

---

---

---

---

---

---

---

---

↓

요일 4:21

---

---

---

---

---

---

---

---



## 천국에 있는 친구에게 지옥에서 쓴 편지

친구에게, 이 편지를 네가 받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게 꼭 해야 될 이야기가 내 마음에 가득하여 펜을 들었다. 내가 알기로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놓여 있어 네게 이 편지를 전해 줄 방법이 없지만, 혹시 그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네게 전해질 지도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지금 나의 처지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나는 단지 내가 살아온 인생과 그 결과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한 증오와 후회로 몸부림치고 있다. 너는 항상 내게 좋은 친구였고 내 옆에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 실제로 너는 내가 사귀 많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게 특별한 우정을 보여 주었고 일상의 작은 일들도 함께 의논하고 도와준 진실한 친구였었다.

그러나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렇게 일상의 작은 일까지도 함께 의논하고 도와주었던 내가 왜 내게 구원에 관한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는가 무척 궁금하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너에 대한 알지 못하는 증오심이 솟구쳐 올라 혹시 네가 진지하게 내게 말해준 기억이 있었는가 지난 일을 하나하나 생각해보았다.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내 주변에서 살아왔었고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었다. 그러나 나는 네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단다. 물론 네가 아주 가끔 내게 전도집회에 가자고 이야기하던 것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던 몇 번의 기억은 갖고 있단다. 그러나 그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로만 들었고 또한 그렇게 심각하게는 네가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리곤 했었다.

나는 네가 정말 천국의 비밀과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와서 알게 되었지만 내가 왜 그러한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내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가 의문이 들었다. 아마도 네가 나를 친구로서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 네가 내 영혼은 사랑하지는 않았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솔직히 나는 네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네가 구원 얻은 자임을 못 느끼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네가 그 큰 구원을 받고서 어떻게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일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기는 너도 지금 그 천국에서 그때 너의 생활을 무척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을테지! 언젠가 내게 선물로 준 전도집회 영상을 본 기억도 떠오른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여기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때 네가 좀더 성의를 갖고 내게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하였다면... 오, 친구여 내게 한번만이라도 좀더 간절하게 눈물로써 경고하였다면... 부질없는 꾸밈이다.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한다. 만일 어떤 기회가 있어 저세상으로 다시 갈 기회가 있다면 제발 남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보다 간절하게 그들을 붙잡고 호소해 주게! 마치 자네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해준다면 아마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걸세! 왜냐하면 자네가 내게 그렇게 했더라면 나도 아마 마음이 움직였을 테니까. 친구여, 안녕.. 이제 영원히 이별일세. 오! 불과 유향이 또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네... 아아아....

질문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요 14:28)"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더 높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자로서의 인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사람으로 나지 않으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 2:6~7)**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여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중보자(仲保者)이신 인자로서 주님은 성부보다 낮은 위치를 취하신 것이며, 이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분이시지 누가 높고 누가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